

국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격돌 예고

오는 12일까지 국정 전 분야
의료공백·연금개혁 등 이슈
계엄령 의혹·채해병 등 공방
김건희특검법 등 전운 고조

여야는 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의료 공백과 연금 개혁, 계엄령
준비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
혹,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정국 현안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
일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9일부터 12
일까지 윤석열 정부 국정 전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
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
육·사회·문화 분야 질의가 이어진다.

첫날 정치 분야 질의에서부터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야당의 탄핵 공세 △계엄령 준비 의혹
등을 놓고 맞붙을 전망이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
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할 예
정이다.

분야별로 11명의 의원이 12분간 질의

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나머
지 한 자리는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
당·무소속 등 의원이 돌아가며 참여한다.

대정부 질문에는 의료 공백과 연금 개
혁, 추석 물가, 계엄 준비설 의혹 등을 놓
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채상병 특
검법, 독도 지우기 의혹 역시 여야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충돌 지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
토 중이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화폐법은 추석 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고, 김건희 특검법
은 당내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은 합의한대로 진
행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
측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안에선 민주당이 쟁점 법안
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무제
한 토론)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정부질
문에 법안 처리를 강행 상정하는 건 전례
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치 못하다”며 “의

사일정은 이미 합의한 대로 진행돼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2일 대정부질문이 파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7월 초 대정부질문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하
면서 파행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여야 원내 지도
부 회동 등을 통해 본회의 일정과 쟁점 법
안 처리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선다.

한편 여야는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오는
26일 본회의 후에 10월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의료대란 해결 논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

민주 “정부 ‘증원 유예 아냐’ 고집”
여당내에선 반쪽 출범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여·야·의·정 협의
체 구성과 관련해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
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는 일이야말로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경질을 재차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어제 여야의정 협의체와 증원 재
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며 “본격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다던 전날 입장에서 후퇴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대란 해결 노력에 정부가 또
다시 초를 쳤다”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는 외면한 채 ‘증원 유예는 없
다’는 예의 고집을 또 반복했다”고 지적했
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을 놓고
또 오락가락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응
급실 뺑뺑이로도 모자라 이제 협의체마저
뺑뺑이를 돌리려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런 식이라면 기껏

등 떠밀려 수용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공
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
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다. 지금이라도 결
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제안한 의정갈
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난항이다.

의료계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
검토가 우선이라고 반발하면서 참여가 불
투명해진 탓이다.

야당도 2025년 의대 정원 문제까지 다
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6일 “2025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당내에선 의료계를 제외한 반쪽
출범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어려울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꾸린 이후 의료계
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문금주 “농민회와 쌀값 안정화 대책 논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
장흥·강진·사진)은 지난 7일 강진군 연락
사무소에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농민
회와 간담회를 갖고 쌀값 안정화 대책 등
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규(고흥), 권용
식(보성), 김동현(장흥), 윤세주(강진)
농민회장을 비롯해 정광현 전라남도 농축
산식품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쌀값 안정화
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17만원선까지 폭
락한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또 농업생산비 폭증
에따른농약·비료·유류
·퇴비 등의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기
후위기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 등도 다뤘다.

문 의원은 “쌀 수확기를 앞두고 지역
곳에서 ‘논 갈아엎기’ 투쟁이 이어지고 있
다”며 “쌀값 문제는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
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문제다.
절박한 심정으로 농민과 함께 싸워나가겠
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에 서왕진 의원

10·16 영광·곡성 재선거를 준비 중인
조국혁신당이 서왕진(사진) 의원을 광주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혁신당은 지난 6일 광주음악산업진흥
센터에서 제1차 광주시당 당원대회를 열
고 단독 입후보한 서 의원을 시당위원장
으로 선임했다. 득표율은 투표수 1331명
중 1001명(97.8%)의 지지를 받았다.

서 위원장은 혁신당 정책위의장으로 활
동 중이다. 지난 6월부터 혁신당 광주시
당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그



는 수락연설에서 “광주
시당이 당원들의 열망
을 타오르도록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가 돼 혁
신당의 심장이 되겠다”
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당원대회에 참석해
“더 좋은 후보와 더 좋은 정책으로 민주주
의를 위해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
다”며 “호남 유권자에게 더 좋은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현 기자



이재명·문재인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혁신, 영광·곡성 재선거 앞두고 거센 신경전

조국, 월세살이… ‘숙식 선거운동’
박지원 “진보 분화 시작될 우려”
민주, 영광 장세일·곡성 조성래 확정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
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간 신경전
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번주 부터
전남지역에 머물러 총력전에 나서기로 하
자, 영광군수 재선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5선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자신도
두 지역에 상주하며 승리를 위해 뛰겠다
고 맞붙을 났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대표는 영
광군수·곡성군수 재선거가 열리는 두 지
역에 월세방을 구해 ‘숙식 선거운동’을 하
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영광군수 예비후보 4명
과 곡성군수 예비후보 2명의 경선을 진행
하고 있으며, 오는 11일 최종 후보를 확정
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표는 당 후보가 확정되면, 영광과
곡성에 머물 곳을 구하고 두 지역을 오가
며 재선거를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 대표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머물며

두 후보를 측면 지원하고, 국정감사는 서
울을 오가며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은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서왕진
의원을 선출하고 조직도 재정비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 6일 당원대회에서
“풀뿌리까지 튼튼한 대중정당으로의 도약
과 호남 정치의 혁신을 위해 재보궐선거
에 도전했다”며 “혁신당의 도전이 호남 정
치를 활성화하고, 지방정치를 혁신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더 좋은 후보와 더 좋은 정책
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며 “호남 유권자에게 더 좋
은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전남 재선거에서 총력전을 예
고하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도
(영광, 곡성에) 상주하며 승리를 위해 뛰
겠다고 맞붙을 났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표를
겨냥해 “어차피 영광, 곡성은 민주당이 승
리한다”며 “지금부터 호남에서 경쟁하면
진보의 분화가 시작될 우렁가 깊다”고 말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기에 조 대표의 통큰 결단
을 바란다”면서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을 영광
군수 후보로, 조성래 전 전남도의원을 곡
성군수 후보로 각각 확정된 상태다.

박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 지
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
국혁신당) 공약으로 팔목할 만한 의석을
확보했다”며 “범야권 절체절명의 목표는
정권교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에 당선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텃밭인 인천 강
화, 부산 금정에서 범야권 단일후보로 승
리의 길을 가야한다”고 야권 단결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에서 경쟁
을 선언한 혁신당, 진보세력 분열을 우려
하며 경계에 나선 민주당이 오는 10월16
일 서로 총력전을 예고하면서, 호남의 주
도권을 둘러싼 두 정당의 승부에 정치권
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는 오는
26~27일 후보자 등록, 10월3일 선거운동
시작, 11~12일 사전투표, 16일 본투표
(오전 6시~오후 8시)로 진행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도당,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공천’ 본격화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지난 6일 공천관
리위원회(공관위) 회의를 열고 10·16 곡
성·영광 군수 재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공
모 일정 등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공천 일
정에 돌입했다.

도당 공관위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공

천 공고 방법과 일정, 후보 부적격 기준 등
을 확정했다. 9일까지 후보자 등록 공고
에 이어 10~12일 도당에서 공천 신청서
류를 접수 받은 뒤 13일 후보자 면접과 평
가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
다.

김화진 도당위원장은 “영광·곡성 발전
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지역 현안에 능통
한 인재를 후보로 출마시킬 수 있도록 공
정한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의힘이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공모 자격과 제출서류 등은 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